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

강진의 명장, 김억추 장수 이야기



강진군
【문화예술과】

사신 길1

석양이 인왕산 산허리에 눕고 있었다. 육조거리에 떨어진 잔광은 아직 짹짹했다. 김억추는 내삼청 일과를 마치고 막 퇴청하려다가 석양이 빛은 핏빛 놀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삼청은 육조거리 뒤편에 있었으므로 인왕산이 훤히 보였다. 관원들이 모두 서둘러 퇴청한 까닭은 7월 초순의 무더위 때문이었다.

무더위는 석양이 지고 나서도 한동안 물러가지 않을 기세였다. 그때였다. 내삼청의 젊은 말구종 하나가 달려왔다. 말구종은 김억추의 말을 관리하고 사육하는 노비였다.

“나리, 김명원 대감께서 이쪽으로 오시고 계십니다요.”

“무신 일로 오시고 겨신다냐?”

“대감께 감히 여쭙보지 못했습니다요.”

“알았응께 나가 있거라.”

김억추는 관청을 나와 선조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의주목사 김명원을 맞이했다. 김명원은 내삼청 문밖에서 타고 온 말에서 내린 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퇴청 무렵에 관청을 찾는다는 것은 급한 용무가 있기 때문일 터였다.

“대감 무신 일인디 소장을 찾아오신게라우?”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왔네.”

“말씀하시지라우.”

“이전에 전하 앞에서 두 번씩이나 무재를 보인 자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네. 잊지 않고 있겠지.”

“한 번은 활을 쏘부렸고, 두 번째는 교룡기에 모새를 담은 차두를 달고 휘둘러버렸지라우.”

“나도 보았네. 이산해, 박순 대감도 보았지.”

김명원은 임금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김억추의 무재(武才)를 눈여겨보았음이 분명했다.

“소장을 의주로 델꼬 갈라고 그래니까?”

“아니네. 한양에 잘 있는 자네를 왜 변방으로 데리고 가 고생을 시키겠는가.”

“자네에게 경사가 될 수도 있으니 약속하게.”

“대감께서 분부하시면 무신 일이든지 해볼랍니다.”

“이달 중순에 명나라로 떠나는데 자네를 내 군관으로 천거했네. 황도를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승진이 기다리고 있을 거네.”

“승진을 마다할 무장이 있겠습니까만 그보다는 소장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황도를 보고 잤습니다.”

김명원이 선조의 부름을 받고 한양에 온 까닭은 성절사의 정사(正使)로 간택되었기 때문이었다. 명나라 황제 만력제의 생일, 즉 성절(聖節)이 9월 초이므로 조선의 성절사가 떠나려면 적어도 7월 중순에는 떠나야 했다.

열어둔 창호 너머로 비껴 보이던 석양이 어느 새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잠자리 날개 같은 날빛은 아직 넉넉하여 어둡지 않았다. 김명원은 용건만 말하고는 서둘러 내삼청을 떠났다. 김억추는 내삼청 정문 밖으로 나가 김명원이 사라진 뒤에도 허리를 굽혔다. 말구종이 말했다.

“나리, 대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셨습니까다요.”

“이놈아, 니가 똥을 안다고 씨부렁거리느냐.”

김억추는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참고 있었다. 뜻밖에도 승진의 기회가 찾아왔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무재를 임금과 조정의 대신들이 인정해 주니 기분이 좋았다. 이이가 병조참지 시절 훈련원 활터에서 자신의 활솜씨를 보고 종7품의 겸사복에 발탁한 적이 있었고, 김명원이 교룡기 기수로 천거하였으며, 선조는 자신의 용력을 보고 ‘쓸 만한 무신’이라 하여 별전의 병풍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김억추의 이름을 적었던 것이다.

선조가 병풍에 무신들의 이름을 적은 것은 때가 되면 부르고자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땅거미가 진 육조거리에는 차츰 어둠이 스멀스멀 차오르고 있었다.

10여 일 후.

김억추는 의주관아에 도착했다. 의주목사 김명원의 배려로 성 안의 군관청 작은방에 3일을 머물다가 사신 일행이 모이고 있는 의주관(義州館)으로 갔다. 의주관에는 사신 일행이 거의 다 도착해 있었지만 두 가지 이유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만력제에게 바칠 각 도의 방물이 아직 다 올라오지 못했고, 두 번째는 엇그제 내린 폭우로 압록강 강물이 불어나 거칠게 흐르기 때문이었다.

배가 뜨는 구룡정 밑의 나루터 강물은 더 거칠었다. 나루터 옆 절벽에 부딪치는 강물은 포효하는 짐승의 흰 이빨 같았다. 가장 애가 타는 벼슬아치는 정사 김명원의 지시를 받아 사신 길을 총감독하는 서장관이였다.

“황도 가는 길에는 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 개도 넘는데 큰일 났구먼.”

“나리, 그렇게나 강이 많습니까?”

서장관의 비장으로 나선 군관이 물었다.

“황도는 강이나 내를 하염없이 건너다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네. 그런데 지금은 계절이 여름이니 여기 압록강처럼 명나라 강물도 범람하고 있지 않겠나.”

서장관의 비장은 붉은색의 철릭을 걸치고 있었는데 제법 멋을 내고 있었다. 철릭은 원래 두 종류였다. 당상관 무관은 철릭이 남색이었고 당하관은 붉은색이었다. 그런데 비장의 철릭은 소매가 너무 좁아 김억추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김억추가 말했다.

“철릭 소매가 겁나게 좁아부요잉.”

“나도 불만이에요. 명나라 장수들이 우리처럼 넓은 소매 옷을 입으면 비웃는다고 해서 한양을 떠날 때 부랴부랴 고쳤소.”

옆에서 듣고 있던 서장관이 말했다.

“명나라 장수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네. 적과 싸울 때 소매가 넓은 것이 좋겠는가, 좁은 것이 좋겠는가.”

“하하하.”

김억추는 웃고 말았지만 철릭의 넓은 소매 때문에 명나라 장수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싶지는 않았다. 의주에 불박이로 사는 역관 하나도 김억추에게 귀뜸을 했다.

“군관 나리. 철릭 소매를 고치는 것이 좋습네다. 명나라 놈들이 장수가 아니라 거렁뱅이 도사 같다고 놀립네다.”

김억추는 화제를 돌렸다.

“강물은 은제나 줄어들겠는가?”

“며칠 지나면 배를 띄울 수 있을 것입네다.”

압록강을 하루빨리 건너고 싶은 김억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강물이 은제나 지 낮바닥을 드러낼꼬나.’

지금은 흙탕물이지만 강물 빛깔이 오리 머리처럼 푸르다고 해서 불려온 강 이름이 압록강이었다. 여전히 거친 물살에 나뭇가지와 잡동사니들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다. 서장관이 의주관으로 돌아가자고 지시했다. 구룡정을 내려오는데 김억추는 맨 뒤에 따랐다.

정사 김명원의 군관이므로 서장관을 호위할 필요는 없었다.

의주관에는 만력제에게 진상할 조선의 방물들이 속속 들어와 있었다. 아침에 본 것과 달랐다. 김명원이 급히 예조에 공문을 띄웠던 효과였다.

팔도에서 보내는 방물들이 늦어지고 있으니 왕실 창고에 보관해온 진귀한 물품들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공문을 띄웠던 것이다. 김억추는 의주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의주관아로 들어가 김명원을 만났다. 김명원 역시도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강물이 순해졌는가?”

“이틀만 지나면 순해질 것 같습니다.”

“인삼이나 담비 모피 같은 방물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네. 도착하는 대로 강을 건너오라고 지시하고 우리는 내일 당장 떠날 수밖에 없네.”

명나라에 가서도 여러 개의 강을 건너야 할 텐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루다 보면 황제의 성질을 놓칠 수 있네. 그리 된다면 전하의 심기가 어찌 되겠는가.”

“대감님 뜻을 서장관 나리에게 전해볼것습니다.”

“그러게.”

“소장이 볼 때도 늙은 역관이나 뱃사공 노비들이 무자게 몸뎡이를 사리는 것 같그만요.”

“자, 이거 받아두게. 명나라 땅으로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은이 필요할 것이네.”

“소장도 짝끔 챙겨갖고 왔그만이라.”

“맨입으로 다닐 수는 없을 것이네. 술을 마실 때도 있고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사기도 하고 그럴 것이네. 노잣돈이 웬만큼은 있어야 든든하지.

사신 일행에 따라붙는 장사치나 의주역관들에게 빌렸다가는 귀국해서 곤욕을 치를 수 있네. 조심하게.”

“으째서 그런당가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나. 그냥 빌려주지 않고 고리를 붙인다네. 아무리 짐 수색을 해도 그 자들은 어디다가 숨기는지 많은 은이나 청심원을 구해 가지고 들어간다네.”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짐 수색을 한다고 그러합니다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네. 나라에서 금하는 물건은 가지고 갈 수 없지.”

다음날.

김억추가 한 역관에게 들은 대로 사신 일행의 짐 수색을 시작했다. 압록강 강물은 어제와 달리 유순해져 있었다. 흙탕물은 그대로였지만 유속은 현저하게 느렸다.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변화였다. 그래도 의주 불박이 역관들이나 노비의 우두머리인 마두들은 의주관에 더 있다가 강을 건너야 한다고 엄살을 떨었다.

사신 일행은 짐을 말 등에 얹고 의주관에서 구룡정 밑 강둑으로 갔다. 강둑 풀밭에는 평안도 부윤이 나와 짐 수색을 실시하려고 도끼눈을 뜬 채 뒷짐을 지고 있었다.

짐 수색은 세 곳에서 하는데 모두 깃발이 꽂혀 있었다. 세 곳을 통과해야만 구룡정 나루터로 내려갈 수 있으므로 깃발은 관문이나 다름없었다.

평안도 부윤이 사신 일행 앞에서 소리쳤다.

“사신 일행은 들으라. 국가에서 금하는 물품을 수색하겠다. 금하는 물품은 황칠, 호피, 금, 진주, 인삼, 담비 모피, 개인이 지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은 등이니라. 소소한 모든 것을 다 말하자면 수십 가지가 되니 생략하겠다.”

부윤은 종2품이었고, 목사는 정3품 벼슬이었다. 그런데 정3품의 김명원은 종2품에게 주는 가선대부 품계를 특별히 받았으므로 짐 수색을 하는 부윤과 품계가 같았다. 김명원은 짐 수색을 받지 않고 세 깃발이 세워진 곳을 가볍게 통과하여 구룡정으로 올라갔다. 사신 일행이 짐 수색을 다 마칠 때까지 구룡정에서 대기하고 있을 셈이었다.

구룡정에는 다담상(茶啖床)이 하나 마련돼 있었다. 서장관은 부윤이 하는 짐 수색을 거들어주었다. 깃발 주변으로 비장, 군관, 역관, 군뢰(軍牢), 마두(馬頭), 노비, 장사치들의 짐과 이불보따리가 군데군데 어지럽게 널렸다. 김억추도 가죽상자를 연 뒤 판전을 피우기만 하는 구실아치 관원에게 말했다.

“벨 것 읊응께 빨리 보시게.”

그래도 구실아치 관원은 옆 동료와 우스갯소리를 하며 김억추의 말을 귓등으로 흘렸다.

그런 뒤에야 부윤 대감의 지시라며 몇 개 안 되는 짐을 낱낱이 끌어내 살폈다.

명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만 보면 구하려고 하는 청심환 스무 개, 은이 든 자루, 강진 작설차, 글씨를 쓰는 장지, 서너 벌의 바지저고리 등이었다. 김억추는 부아가 치밀어 한 마디 뱉어냈다.

“벨 것 읊다는디도 뭘 꺼내 샀는가.”

이번에는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구실아치 관원이 김억추에게 철릭을 벗으라고 하더니 바짓가랑이를 더듬었다. 김억추는 참지 못하고 구실아치 관원의 정강이를 걷어차 버렸다.

“이놈의 자숙! 나 김억추는 임금님 교룡기를 들었던 행수 기사다. 뭇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냐!”

구실아치 관원이 데굴데굴 구르며 ‘아이고, 나 죽습네다!’ 하고 비명을 질렀다. 부윤이 달려왔지만 김억추의 큰 체격을 보고는 주춤 물러섰다. 김억추의 두 눈에서 불화살이 쏟아지는 듯했다. 부윤은 지금까지 거만하게 굴던 태도를 바꾸어 부드러운 말투로 물었다.

“어느 대감 군관인가?”

“김명원 대감님 군관이그만요.”

“이해하시게. 짐을 수색하지 않으면 간사한 짓을 막을 수 없다네.”

“대감님, 요로크롬 질질 끌며 망신을 주는 수색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여그 사정에 밝은 의주 장사치들은 금지된 물건을 갖고 혼자 강을 건너가 사신 일행을 지다리고 있을 것입니다요. 궁께 부질없는 짓이지라우.”

정강이를 채인 구실아치 관원이 김억추 앞에 엎드려 빌었다.

“나리, 죽을 죄를 졌습네다.”

“니들 일이 수색이라 하더라도 명색이 왕명을 받들고 가는 사신 일행인디 체통을 손상시켜서야 쓰졌는가.”

“명심하갠습네다.”

“저쪽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온 역관이나 장사치들은 엄하게 수색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허나 먼 길을 떠나는 사신 일행에게 망신을 주어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잉.”

“나리, 죄송합네다.”

“오늘은 부윤 대감님을 보아서 이 정도로 끝내볼턴게 그리
알거라.”

김억추 덕분에 짐 수색은 일사천리로 끝났다. 힘없는 노비
들에게 옷을 벗게 한 뒤 갖은 텃세를 부리던 구실아치 관원
들이 사신 일행의 성명과 숫자를 세는 정도의 수색으로 마감
했다.

구룡정 나루터에 도착한 사신 일행 중 마두나 군뢰들이 김억추의
배짱을 보고서는 머리를 조아렸다. 김억추가 김명원에게
말했다.

“대감님, 짐 수색이 과한 것 같아서 혼을 쏙간 내쥬부렸
습니다요.”

“나도 몰랐는데 방금 들어보니 급행세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네.”

“그리고 봉께 놈덜이 급행세를 받고자 까탈스럽게 굴었그만요.”

“다들 그랬겠는가만 꼭 몇 놈이 문제지. 부윤 대감의 위세를
믿고 몰래 급행세를 받아 한 몫 챙기려고 그랬던 것 같네.”

“앞으로도 그런 놈이 있다면 소장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요.”

“어디를 가나 미꾸라지 같은 놈이 맑은 물을 흐리는 법이지.”

“짐 수색이 가장 엄한 곳 가운데 하나가 이곳 구룡정
나루터라고 하그만요.”

“황도로 가는 길목이니 그럴 것이네.”

국경지방의 짐 수색과 소지품 검사는 예부터 엄했다. 국가에서 금지하는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첫 번째 깃발에서 걸리면 큰 곤장을 맞고 그 물건은 압수당하며, 두 번째 깃발에서 걸리면 귀양 가야 하고, 세 번째 깃발에서 걸리면 효수형에 처해져 조리를 들렸다.

이처럼 법이 엄격하니 수색하는 구실아치 관원들의 위세까지 덩달아 올라가버린 셈이었다. 구룡정 나루터에는 사신 일행이 타고 갈 다섯 척의 배가 말뚝에 묶여 있었다. 김억추는 정사 김명원이 탄 배를 탔다.

정사가 탄 배에는 명나라 조정에 올릴 공문서와 수석역관인 수역(首譯) 이하 정사의 권속들이 탔고, 부사와 서장관에게 딸린 권솔들은 두 번째 배에 탔다. 그리고 다른 배 한 척에는 명나라 황제에게 올릴 예물과 말을 태웠다.

이윽고 평양 감영의 구실아치와 허드렛일을 하는 장정인 군뢰 등이 뱃머리에 서서 큰소리로 하직인사를 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요!”

김명원의 마두와 임금에게 올리는 장계 초안을 잡는 계서(啓書) 등도 손을 흔들며 하직인사를 했다.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요.”

끝으로 김명원의 마두가 창하듯 길게 소리를 냈다.

“출...발...!”

그러자 사공들이 일제히 뱃노래를 부르며 상앗대를 치켜들었다가 강물 깊숙이 찼다. 순간 배들은 미끄러지듯 빠르게 강 건너편 쪽을 향해 나아갔다. 김억추는 어금니를 악물고 칼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계속>